

# 실생활 문제해결력 높인다

### 도교육청, '미래형 융합교육 선도학교' 협의회... 주제중심 교과운영 등 의견 나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미래형 융합교육(STEAM, 이하 스템) 선도학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스템 선도학교로 선정된 도내 초·중·고 17개교의 담당 교원이 참석했다. 스템 선도학교는 2개 이상의 학문 분야나 교과 지식, 개념 등이 연계된

교육과정을 통해 실생활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주제중심 교과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융합 과목 중심 연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스템 선도학교 운영과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

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을 만들어 간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융합교육 자원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에 내실화를 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래사회 역량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 및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난 15일 열린 전주MBC 시청자위원회.

## “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최선”

### 전북대 양오봉 총장, 전주MBC 시청자위원장에 위촉됐다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2023년 전주 MBC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장에 위촉됐다. 이에 따르면 전주 MBC는 지난 15일 2023년 시청자위원회를 갖고 양오봉 총장을 신입 시청자위원장에 위촉했다. 이에 양 총장은 앞으로 1년 동안 전주 MBC 시청자위원장으로 전주 MBC

방송 편성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하게 된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지역 방송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해 온 전주 MBC의 시청자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변화된 매체 환경에서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이태건 박사, CAP Young Researcher Award 수상

전북대학교 이태건 박사가 한국물리학회 제99회 정기총회에서 'CAP Young Researcher Award'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만 40세 미만의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및 비전임 연구교수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태건 박사는 그래핀과 전이금속 칼코겐화합물 등의 이차원 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물질에 대한 구조 및 광학적·전기적 특성 연구를 꾸준히 수행, Gant Applied Physics 학술지 및 세계 우수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해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박사는 “연구책임자 노희석 교수의 지도와 격려로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며 “연구에 더욱 매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 박사는 2022년 전북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에너지구조능동소재 기초연구실(연구책임자 노희석 교수)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가 2023년 한국기계공학회 춘계학술대회(부산)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 전주대, 기계가공학회 춘계학술대회 ‘혁신상’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가 2023년 한국기계공학회 춘계학술대회(부산)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수상자는 이충호 교수의 3명(이종원, 이현우, 유한희)과 정호연 교수 외 2명(하시은, 윤은지)이다. 논문 주제는 RecurDyn에 의한 4-Post Road Simulator 구현, ‘로터리 작업기 Simulink 수평 제어 응답성 시뮬레이션’, ‘모빌리티 자율주행 배탈 로봇 연구, 이동이 용이한 접이식 휠체어 메카니즘 개발’, VR 자전거 시뮬레이터, VR 시야를 시뮬레이션 스토리보드 작성 및 개발로 총 6편의 논문이 입상했다. (사)한국기계공학회 주관하는 춘계학술대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제조혁신 기술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춘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열린 캡스톤 디자인 발표는 기계설계, 열유체/유체기계 등 총 9개 주제의 문제 해결에 대해 발표하는 대회로 50개 팀이 참가했다. 입상한 이종원 학생은 “최근 코로나 이후 인하여 많은 학회가 온라인 발표로 진행했는데 이번에 방역 지침이 완화되며 대면 발표가 이뤄진 학회에 참석해 많은 질의응답을 통해 부족한 부분

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됐다”며 “이충호 교수님 지도로 팀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상의하며 만든 발표 자료가 좋은 성과를 거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를 지도한 정호연 교수는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 전국규모의 학술대회에서 혁신상을 받아 매우 기쁘다”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은 자극과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학생 지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충호 교수는 “지능형 기계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은 다양한 학습 경험과 연구 능력을 갖춘 실무형 인력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기업과 연계된 캡스톤디자인발표는 기업의 요구에도 부합하고 변화하는 산업에도 필요한 문제해결형 인력양성에도 부합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업 연계 연구를 지속하고 학회 출전을 통해 지능형 기계산업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도교육청은 16일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유공교원들에게 정부포상 및 교육감 표창 전수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신성화 봉암초 교사, 문선 군산부설초 교사, 최갑용 군산신북초 교장, 서거석 교육감, 김선영 백석초 교사, 양형란 정주고 교사, 이화영 마령중 교사, 강혜정 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

## ‘남다른 사명감·헌신으로’

### 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 정부포상·교육감 표창 홍조근정훈장 1명·근정포장 1명 등 총 456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유공교원 456명에게 정부포상 및 교육감 표창 전수식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에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으로 전북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교원 및 교육공무원이 정부포상 및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수상은 홍조근정훈장 1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 장관표창 111명, 교육감표창 337명 등이다. 먼저 홍조근정훈장을 받는 군산산

북초 최갑용 교장은 재외한국 학생들의 헌신적 정서교육강화를 통해 재외국민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근정포장을 받는 백석초 김선영 교사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기초학력 향상에 헌신하며 동료상에 기반한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수·학습 개선에 기여해 왔다. 또한 대통령표창은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 문선 교사, 정주고 양형란 교사, 마령중 이화영 교사가, 국무총리표창은 전북도교육청유아

교육진흥원 강혜정 원장, 정주고 소정원 교사, 봉암초 신성화 교사가 수상했다. 장관표창은 총 111명이 수상했으며, 분야별로는 교과지도 40명, 생활지도 23명, 진로직업 23명, 교육혁신 20명, 교육복지·봉사활동 5명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교사고 우리 학생들이 미래교육의 주역이 되도록 희망을 꽃피우는 분들도 바로 교사”라면서 “앞으로도 모든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초중고교 스마트기기 선정 ‘공방전’

전북교육청의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기기 선정 사업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교육청과 교육지지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는 1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거짓과 의혹이 넘쳐나는 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선정 사업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북교육연대 주장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올해 900억 내년 1,100억 원 규모의 스마트기기 선정 사업과 관련해 물품선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원래 발언한 내용대로 정리하지 않고 임의로 재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고, 특정 업체나 프로그램을 밀어주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 물품선정위원회의 발언록 전체와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회의록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 3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 까지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약 2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과 A4 용지 8쪽 분량으로만 회의록을 만들었고, 심지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기록하거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논의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과 교육지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1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거짓과 의혹이 넘쳐나는 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선정 사업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도교육청, 지구촌 문화교실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유학생들이 자국의 언어·문화 등을 소개하는 2023년 지구촌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구촌 문화교실은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로 하여금 자국의 문화와 전통 등을 소개함으로써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다문화 이해 및 남을 배려하는 인권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전주·군산·익산 등 3개 지역 초등학교 70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되며,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4월 25일부터 5월 12일까지 유학생 기부자 40명을 선정했다. 이들 유학생 1명당 학기 중 최대 4개 교를 방문해 총 12주 동안 48시간의 자국 언어·문화·자연환경 등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이날 참여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연수를 진행했다. 또 선정된 학교와 유학생 간 사전 면담을 통해 수업의 주제 및 내용, 운영시간, 학교별 유의 사항 등을 공유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교육연대, “물품선정위 회의록 조작... 진실 밝혀야” 도교육청 “사실 무근... 2학기부터 차질없이 추진할 것”

PC 웨일OS 사전 선정 주장에 대해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기본계획과 기종선종 계획에 따라 2023년 2월 IT 전문성을 갖춘 현장교사 중심으로 평가해 웨일OS를 선정했다”며 “보급 기본계획에서 업무추진팀에 OS기종 선정 권한을 물품선정위원회는 기기 가격 선정 권한을 지정했으므로 3월 7일 물품선정위원회에서는 기기 세부규격 심의안만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록 조작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물품선정위원회는 속기록 작성 대상이 아니다”며 “국가기록원의 기록물관리 지침에 따라 상정안 건인 기기가규격에 대한 주요 발언요지를 회의록에 정리했고, 내용이 이상없음을 확인 후 전체 선정위원이 서명날 인해 마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학생·교사·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진행했다”면서 “2학기부터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디지털 역량을 키워가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전주기전대, 야외 진로 취업상담 FESTA 진행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6일부터 2023학년도 1학기 야외 진로·취업 상담 FESTA(페스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3회를 거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청년고용정책 설명회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주관하는 진로 취업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한다. 특히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전주 기전대학교 야외 테라스에서 진행된다. 조덕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생기를 되찾아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많이 참여해 놀랐다”며 “이것이 우리 학생들의 요구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힘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